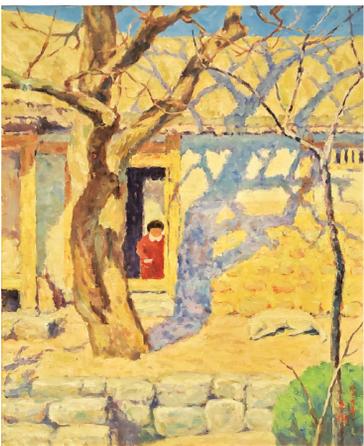


오지호 탄생 120주년...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



오지호의 생전 유품.

도립미술관 내년 3월 2일까지 동경예술대 졸업작품 자화상 국내 우수 미술관 소장작 대어 아카이브 자료 100여점 공개 장남·차남·장손 작품도 함께



'남향집'



화순 출신 오지호 화백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가 내년 3월 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회화는 태양과 생명과의 관계이자 융합이다. 회화는 환희의 예술이다."

오지호(1905~1982)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으로 한국 인상주의 화풍을 개척한 예술가다. 그의 작품은 맑고 밝은 색채, 빛에 의해 발현되는 자연의 생명력이 특징이다. 평론가들은 오지호의 작품을 일컬어 '한국적 자연주의와 인상주의 화풍'을 결합한 독창적 세계라고 평한다.

오지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작품 전시회가 15일 개막해 내년 3월 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린다. 도립미술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등을 공개했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오지호와 인상주의 :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지호 탄생 120주년(2025)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련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생애를 아우르는 회화 100여 점을 비롯해 아카이브 1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오지호의 데드 마스크와 생전에 사용하던 이젤과 팔레트, 작업복 등이 전시돼 창작세계와 예술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의미는 오지호 화가의 조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리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현대화랑, 유족 등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전시가 가능하다"며 "오지호 화백의 화업을 이어간 장남 오승우, 차남 오승운, 장손 오병욱의 대표 작품도 함께 전시해 일가의 회화 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는 오지호 화백의 동경예술대 시절 졸업 작품, 새로 공개되는 작품도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아미타후불탱화'(1954)와 국한문 혼용운동, 문화재 보존운동 등 다양한 기록은 오지호 화백 예술인생을 다면적으로 보여준다.

화순 출신의 오지호 화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휘문고보통학교 시절 고희동의 지도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도쿄미술학교(현 동경예술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해 자신만의 화풍을 열어가다.

특히 올해는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인상파 전시가 열린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이와 맞물려 인상주의 대표작가인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세계를 VR로 체험할 수 있다.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한 김혜경 박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전시를 위해 오지호 화백

을 비롯해 일가의 작품, 아카이브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했다"며 "오지호 화백은 서구 인상주의를 도입한 것을 넘어 한국의 자연주의와 서구 인상주의를 토대로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독창적 미학으로 구현한 작가"라고 설명했다.

인상주의의 시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제고하는 일환으로 오지호, 김홍식, 김용준의 동경예술대학 졸업작품(조상화 등)도 전시됐다. 또한 일본동경예술대학교 교수이자 일본의 대표 인상주의 화가인 오카다 사브로스케, 후지시마 다케지의 작품도 관객을 맞는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인상주의를 탐색하다'는 1920년대 동경예술대학 유학 시절, 한국 최초 서양화 미술 단체인 '녹향회' 활동과 연관된 작품이 출품돼 있다. 1930년대 개성 송도 시절에 출간한 한국 최초의 원색화집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1938)에 수록된 '처의 상', '암금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남향집' 등 인상주의 천착기에 그린 작품들을 만난다.

공동 큐레이터인 한선우 도립미술관 학예사는 "오지호 화백은 민족주의적 가치의 추구, 우리말 표기와 국한문 혼용 사용, 한자교육 운동을 주창했다"며 "'구상화론 선언', '순수화론', '피카소와

현대회화' 등 의미있는 주제를 논문으로 발표한 미술평론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부 '남도 서양화단을 이끈다'에서는 오지호 일가의 작품들을 만난다. 아들 오승우(1930~2023), 오승운(1939~2006), 그리고 장손 오병욱(1958~)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일가의 작품세계가 선대로부터 어떤 변화를 거쳐 후대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3부 '한국 인상주의를 구현하다'는 1970년대 이후 빛과 색채로 구축한 남도 풍경, 해외여행(1974, 1980) 체험을 담은 화폭, 미완의 유작 '세네갈 소년들' 등이 관객을 맞는다.

김민경 학예연구실장은 "오지호는 30년대 후반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광주로 내려와 조선대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다"며 "퇴직 이후에는 작고할 때까지 지산동 자택에서 남도 풍경과 정취를 화폭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연계로 국제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오후 2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허백련 '사군자도'를 만나다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관서 기증 작품전... 서화·고문서 등 9점

허백련의 '사군자도'는 노년기의 원숙한 화풍이 집약된 작품이다. 모두 네 폭의 족자로 이루어져 있어 의미와 조화가 절제된 화풍이다. 화면에 적힌 '의도인(義道人)'은 허백련이 60세 이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말 그대로 자신이 정진하고 있는 예인의 길에 대한 신념을 담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이 기증받은 허백련의 '사군자도' 1건 4점과 '신여량 밀부유서'를 비롯한 '신여량 밀부유서' 등 조선시대 서화, 고문서 6건 9점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상설전시관 역사문화2실 교체와 맞물려 진행중이며, '사군자도'는 의재의 제자인 정춘자 씨로부터 기증받았다.

정 씨가 작품을 소장하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63년 정 씨는 서화를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의립미술협회 심사를 위해 소년 손재형 등과 서울에 올라온 의재를 만났다. 서화를 직접 배우고 싶다는 간곡한 뜻을 전했고 이에 감동한 의재가 선물한 작품이다.

이후 스승은 서울의 제자에게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서화를 가르쳤으며, 제자는 스승과 나는 기적과 작품을 50여 년간 보관했다. 제자인 정 씨는 지난해 9월 광주박물관에서 연 특별전 '애중, 아끼고 소중한 아진 그림'에 이 작품을 출품했고 기증에까지



'죽국난매'

이어졌다.

역사문화2실에서는 그 외의 서화, 고문서가 새롭게 걸려 관람객을 맞고 있다.

최흥선 관장은 "상설전시관인 역사문화2실에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향기와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기증자의 귀한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능 수험표로 광주비엔날레 할인받자

12월 1일 폐막일까지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연다. 폐막일인 오는 12월 1일까지.

비엔날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입장권을 당초 9000원에서 사전예매 할인가 7000원으로 가능하다. 입장권에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응원 메시지도 담겨 있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들을 위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별 방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장 발

권 시 매일 선착순 50명에 한해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전시관 옆 카페 '33apartment'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비엔날레는 온라인 이벤트도 펼친다. 작품을 배경으로 수험생이 전용 입장권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된다.

한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용봉동 본 전시관을 비롯해 31개 파빌리온에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주곡 없는 슈트라우스 노래

임현진 독창회 내달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주곡이 없는 노래에 성악가가 목소리를 얹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다. 노래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나 악상 전개 방식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소프라노 임현진(사진) 독창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빛과 그림자'를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슈트라우스 초·중·후기 대표 가곡 중 전주곡이 없는 작품을 선별해서 부른다.

임 씨는 이에 대해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전주 없이 시작하는 노래 한 곡을 듣다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을 느꼈다'며 "선율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곡에 진입해서야 알 수 있기에 프렐류드(전주곡)를 빼고 노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먼저 초기작 중 하나인 '그대의 시선을 느낀 후'와 '별들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등이 울려 퍼진다. 공연 전에는 간단한 작품 해설을 곁들여 곡

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어 전주곡 없는 중기 작품 '어머니의 눈물', '두근거리는 가슴'을 들려준다. 끝으로 후기 작품인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저녁 노을', '잠자리에 들 때', '9월' 그리고 '봄' 네 곡으로 구성됐다.

조선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임현진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다. 하이든 '천지창조', 바흐 '마태수난곡', 오페라 '리콜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 왔다.

피아노 연주는 광주시향 등과 협연하고 현재 전남대, 경희대 등에 출강 중인 이철민이 들려준다. 서술자(해설) 역할은 전남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클래식 공연 전문 기획사 한별 클래식 대표로 있는 임현진이 맡는다.

임현진은 "동요를 흥얼거리던 여덟 살 소녀부터 마흔넷,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줄곧 음



악과 한 몸처럼 지내온 세월이 가능된다"며 "슈트라우스에 대한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무료 공연. 사전 예약 필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정아한 피리의 선율 속으로

박혜민 '피리 독주회 II'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해남 출신의 피리 연주자 박혜민(사진)은 광주 예고, 전남대를 졸업한 뒤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를 이수했다. 이후 전주 시립국악단에 입단, 자신만의 감성으로 관객들을 만나 왔다.

박혜민이 '박혜민의 피리 독주회 II'를 오는 23일 오후 3시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연다.

첫 곡은 서용석 명인이 어린 시절 남도음악의 맛을 피리로 옮긴 '서용석류 피리산조'다. 이날 공연에서는 짧은 산조 버전으로 연주한다.

이어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영원'을 세피리로 들려준다. 궁중에서 사용되던 음악인 이 노래는 계면가락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등 세 개 곡을 하나로 합한 모음곡이다. 이번에 개작·초연하며 거문고, 세피리 및 건반으로 편성.

대피리와 건반이 어우러지는 창작곡 '저물', 대

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 강소일이 위촉 창작해 초연하는 '여희재'도 레퍼토리에 있다.

그중 '여희재'는 광주 광산구에 전해져 오는 왕건과 장화왕후 전설을 모티브로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다.

대미는 징, 장단, 퍼커션 등 전 출연진이 함께 연주하는 '박종선류 태평소 시나위'가 장식한다. 광주예고 박선영, 진도 국악고 박준호 교사를 비롯해 박선호(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 정민조, 이영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박혜민은 "'피리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총 다섯 편의 피리 연주곡을 들려주는 자리"라며 "향피리, 세피리, 대피리로 구성된 레퍼토리들이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씨는 이밖에도 전주교대 전통음악과정 및 황학 국악관현악단 피리 강사, 광주예고 강사·순창 청소년 무지개오케스트라 피리강사 등을 역임했다. 무료 공연. /최류민 기자 rubi@